



백삼위 한인성당

2701 W.237th St. Torrance, CA 90505
www.103skcc.org 103skccusa@gmail.com

주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10-408-1443
연령회장 310-749-8942
사무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 · 토요일 미사 30분 전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다해) 연중 제15주일

입당 : 희망의 순례자들 파견 : 6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둔 우어라. (시편 69, 14, 17, 30-31, 33-34, 36, 37)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련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하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
-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둔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
- 하느님은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신다. 그분 종들의 후손이 그 땅을 물려받아, 그분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 살리라. ◎

◎ Turn to the Lord in your need, and you will live.

(Psalm 69:14, 17, 30-31, 33-34, 36, 37)

- I pray to you, O LORD, for the time of your favor, O God! In your great kindness answer me with your constant help. Answer me, O LORD, for bounteous is your kindness: in your great mercy turn toward me. ◎
- I am afflicted and in pain; let your saving help, O God, protect me. I will praise the name of God in song, and I will glorify him with thanksgiving. ◎
- "See, you lowly ones, and be glad; you who seek God, may your hearts revive! For the LORD hears the poor, and his own who are in bonds he spurns not." ◎
- For God will save Zion and rebuild the cities of Judah. The descendants of his servants shall inherit it, and those who love his name shall inhabit it. ◎

거룩한 시간 (3)

저 녀

죽음도 끝에 가서는 이런 것이 아닐까. 즉, 인간이 자기의 지나간 일생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아닐까. 자기 일생에 결정적으로 지어주는 얼굴이 아닐까. 이 판국에서는 인간이 자기 일생 전부를 다시 한번 좌우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장엄한 결단이 문제된다. 참회는 그르쳤던 것을 그 불에 달구어 바로잡고, 감사와 겸손은 옳았던 것에 대한 영광을 하느님께로 돌려 모든 것이 하느님께 대한 남김없는 봉헌이 되게 한다. 그렇지 않고 인간이 낙심하면 자기 일생을 품위도 기운도 없는 종말로 흘러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일생의 끝을 냈다기보다 그저 살다가 말았다고 해야 옳다. 그런 일생에는 아무런 모습도 얼굴도 없다.

이것이 바로 숭고한 “죽음의 예술”이다. 지나간 생애를 하느님을 위해 단 한마디 “네” 소리로 화하는 예술이다. 옳다. 매일 저녁이 참 결말을 삶에 지어주는 숭고한 이 예술의 연습이어야 하겠다. 그 결말은 모든 과거에 종국적 가치와 영원한 얼굴을 부여한다.

저녁 시간은 완성의 시간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느님과 대면하여 궁극적 문책을 받으리라는 것을 예감하면서 하느님 앞에 서본다. 그러고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의 뜻을 느끼며 되짚어 본다. 좋은 일, 나쁜 일, 농친 일, 버린 일. 과거와 미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잃어버린 일마저도 뉘우치는 이에게 되찾아주실 수 있는 분 앞에 우리는 책임을 진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지낸 하루의 모습을 결정지어 본다. 거기 옳지 않았던 것은 뉘우침으로써 알아차려 고쳐 생각하고, 좋았던 것은 아무런 자만도 없이 겸손히 감사한다. 또 모든 애매하고 모자라고 초라하고 흐렸던 일일랑은 서슴없이 의탁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맡긴다.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 7월 영화관람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 옆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는

저녁식사가 제공됩니다.

장소 : 미디어실(강당)

신청마감 : 7월 20일(주일)

문의 : 이태환 이냐시오 ☎ 971-325-7517

교 무 금	\$	8,860.00
-------	----	----------

주일헌금 \$ 2,645.00

합	계	\$ 11,505.00
---	---	--------------

강영미	경철호	고미용	구명선	권오상	권태만	김상기
김여순	김옥희	김원호	김윤진	김은주	김종렬	김향규
김희도	박광자	박동수	박브랜든	박순자	박순진	박완철
박인식	박정희	박종열	방정복	배태임	변복순	서창호
송순자	안재만	오명섭	유기성	유중수	윤규화	이경태
이계옥	이근태	이민상	이성희	이용무	이행자	전지윤
정규숙	정순석	조준제	최기진	최미열	최성은	최열자
최재은	황영선	황지영	익명			